

2013년 3월 14일 공보 2013-3-14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3년 3월 14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cscha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유럽국가 CDS ¹⁾ 프리미엄				
	(전기비연율, %)						(기말 기준, bp)				
	11.3/4	4/4	12.1/4	2/4	3/4	4/4		12.12월	13.1월	2월	3.13일
미국	1.3	4.1	2.0	1.3	3.1	0.1	포르투갈	443	395	398	373
유로지역	0.3	-1.2	-0.2	-0.7	-0.3	-2.3	스페인	300	269	267	265
일본	10.6	0.4	6.1	-0.9	-3.7	0.2	이탈리아	289	252	279	273
중국 ¹⁾	9.2	8.9	8.1	7.6	7.4	7.9	아일랜드	220	197	168	168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Bloomberg, CEIC

주: 1) 5년 만기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소비 및 설비투자는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설 연휴 등에 따른 임시·일용직의 감소폭 확대로 전월보다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가 유로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캡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12.2/4	3/4	4/4	12.11월	12월	13.1월	2월
GDP 성장률	3.6	2.0	2.3	1.5	1.5	-	-	-	-
GDP 민간소비	2.3	1.8	1.1	1.6	2.8	-	-	-	-
소매판매	4.5	2.3	1.4	2.6	2.5	4.0	2.0	-2.8	..
(S.A, 전기비)	-	-	(0.3)	(1.2)	(0.4)	(1.2)	(0.4)	(-2.0)	..
GDP 설비투자	3.7	-1.8	-3.5	-6.5	-5.1	-	-	-	-
설비투자지수	4.0	-2.0	-2.7	-8.2	-6.9	-10.8	-6.3	-13.6	..
(S.A, 전기비)	-	-	(-5.0)	(-6.8)	(0.8)	(0.1)	(6.3)	(-6.5)	..
GDP 건설투자	-5.0	-1.5	-2.1	-0.2	-4.1	-	-	-	-
건설기성액	-6.4	-5.8	-9.7	-2.3	-5.6	1.5	-8.2	9.4	..
(S.A, 전기비)	-	-	(-0.9)	(1.0)	(1.5)	(1.3)	(2.2)	(0.2)	..
수출(통관)	19.0	-1.3	-1.7	-5.8	-0.4	3.9	-6.0	10.9	-8.6
(일평균, 억달러)	(20.2)	(20.0)	(20.9)	(19.0)	(20.4)	(19.9)	(20.9)	(19.0)	(20.6)
제조업 생산	6.0	0.8	1.0	-1.1	-0.2	1.9	-0.6	7.7	..
(S.A, 전기비)	-	-	(-0.5)	(-2.3)	(2.9)	(2.2)	(1.4)	(-1.1)	..
서비스업 생산	3.2	1.6	1.5	1.5	0.8	1.4	0.7	1.7	..
취업자수 증감 ¹⁾	415	437	430	506	342	353	277	322	201
(공공부문 ²⁾ 제외)	424	437	425	519	377	396	303	348	209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균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4%, 1.3%로 전월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비교적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 효과가 일부 소멸되면서 현수준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물가상승률

	12.10월	11월	12월	13.1월	(전년동월대비,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2.1 (-0.1)	1.6 (-0.4)	1.4 (0.2)	1.5 (0.6)	1.4 (0.3)
▪ 농축수산물 (농산물)	5.9 11.4	2.9 7.6	1.6 8.6	2.1 8.7	3.3 6.7
▪ (축산물)	-3.4	-5.6	-11.8	-11.4	-4.1
▪ 공업제품	2.2	1.5	1.3	1.3	0.7
▪ 서비스요금 (집세)	1.4 3.5	1.3 3.3	1.3 3.3	1.3 3.2	1.2 3.1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1.5	1.3	1.2	1.2	1.3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1.4	1.4	1.4	1.4	1.2

-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상승률

	12.10월	11월	12월	13.1월	(전월비, %) 2월
주택 매매가격	-0.1 (-0.2)	-0.1 (-0.1)	-0.1 (-0.1)	-0.1 (-0.1)	-0.1 (-0.1)
▪ 서 울	-0.4 (-0.6)	-0.3 (-0.4)	-0.2 (-0.4)	-0.2 (-0.4)	-0.2 (-0.3)
▪ 경 기	-0.4 (-0.5)	-0.3 (-0.4)	-0.2 (-0.2)	-0.1 (-0.2)	-0.2 (-0.2)
▪ 5개광역시 ¹⁾	0.2 (0.2)	0.2 (0.2)	0.1 (0.1)	0.1 (0.0)	0.1 (0.1)
▪ 기타지방 ²⁾	0.1 (0.2)	0.2 (0.2)	0.1 (0.1)	0.1 (0.1)	0.0 (0.1)
주택 전세가격	0.5 (0.6)	0.4 (0.5)	0.2 (0.3)	0.2 (0.3)	0.3 (0.4)
▪ 서 울	0.5 (0.7)	0.4 (0.5)	0.2 (0.2)	0.3 (0.3)	0.3 (0.4)
▪ 경 기	0.6 (0.7)	0.3 (0.4)	0.1 (0.1)	0.1 (0.1)	0.2 (0.3)
▪ 5개광역시 ¹⁾	0.5 (0.7)	0.4 (0.5)	0.3 (0.4)	0.3 (0.3)	0.3 (0.4)
▪ 기타지방 ²⁾	0.5 (0.6)	0.5 (0.7)	0.3 (0.4)	0.3 (0.4)	0.2 (0.4)

주 : 1)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3) () 내는 아파트 기준

자료 : 국민은행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과 국내 지정학적 위험 증대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데 주로 기인하여 하락하였다.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으나 최근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으로 상승하였다.

금리, 주가 및 환율¹⁾

	12.10월	11월	12월	13.1월	2월	3.13일
CD(91일)금리(%)	2.85	2.85	2.89	2.84	2.82	2.81
국고채(3년)금리(%)	2.77	2.84	2.82	2.76	2.63	2.61
KOSPI	1,912.1	1,932.9	1,997.1	1,961.9	2,026.5	1,999.7
원/달러 환율	1,090.7	1,082.9	1,070.6	1,089.0	1,083.0	1,097.4

주: 1) 기말기준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